

# 마음사랑

2018 겨울호  
VOL.87

마음사랑 소식지는 열린마음, 밝은마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은 우리 모두의 바람을 담았습니다.

Smart  
Sweet  
Sincere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상의 만족을 제공하는  
**Smart 서비스**

고객의 마음을 읽고 기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Sweet 서비스**

고객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Sincere 서비스**

마음사랑병원은 3S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라  
북도 **마음사랑병원**

전라  
북도 **마음사랑병원**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465-23  
Tel. 063)240-2100 Fax.063)240-2117  
<http://www.maeumsarang.co.kr>

- 정와대: 대통령이 칭찬하신 마음사랑병원
- 한국서비스품질: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 여성부 인증: 여성부 인증
- 남녀고용평등: 남녀고용평등 대통령상 수상
-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
- 고용노동부: 노사문화유공 대통령표창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 평생학습대상: 평생학습대상 우수상 수상
- 가족친화: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 근로자 건강증진 사례: 근로자 건강증진 사례 우수상 수상
- 기업학습 우수사례: 기업학습 우수사례 기관 선정 노사 한누리상 수상
- 보건복지부 인증: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Cover Story\_ 마음사랑병원 '스마일캠페인'  
 마음사랑병원을 이용하시는 여러분께 드리는  
 직원들의 친절, 사랑 그리고 새 희망의 미소입니다.



소식지 겨울

# 마음사랑

## CONTENTS

<b>인사말</b>		
여는 글	사랑이 나쁘다	04
<b>건강</b>		
건강 길라잡이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나, 무엇이 문제인가요?	06
메디컬 칼럼	청소년 자살	08
<b>치료</b>		
프로그램	내 인생 속 진짜 주인공이 되는 시간	10
<b>브릿지</b>		
내 마음의 심포	마음사랑병원에서 힐링을 외치다	12
<b>기획</b>		
기획 이슈	제9회 마음사랑축제 'healing day'	14
<b>정보</b>		
휴(休)	물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	16
<b>스토리</b>		
행복나누기	마음사랑병원 신메뉴 대첩	18
마음나누기·1	중독치료센터 환자 회복수기	20
마음나누기·2	낮병원 회원의 시	22
열정 36.5	가족의 걱정과 눈물을 안도와 희망으로!	24
<b>뉴스&amp;안내</b>		
마음사랑뉴스	뉴스/재단소식	26
Information	월례교육	32
	서틀버스안내	33
	마음사랑후원회	34
	마취하 전기자극치료 (M-ECT)	35

# 사랑이 나쁘다

예전엔 해외여행을 가려면 안내 책을 사서 미리 공부들 하셨지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드니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냥 떠납니다. 그곳의 냄새를 맡고 현지 음식을 맛보고 사람들 사는 모습을 대충 보고 와서, 위에서 안에서 자세히 찍어 설명하는 여행방송을 보노라면 기억이 살아나며 두 번 여행하는 듯 충정리가 되더군요. 영국여행 일정에 낭만파시인 윌리엄 워즈워드(1770~1850)가 생전에 살았다는 <도브코티지 Dove Cottage> 방문이 있었는데, 결혼 전엔 동생 도로시 워즈워드와 또 결혼 후엔 부인과 아이들 그리고 동생과 함께 살았다는 길가의 작은 이층집입니다. 버스이동하며 곁들여지는 가이드의 설명은 자장가보다 더 달콤해 늘 좋고 마는데 슬픈 사랑이야기엔 귀가 쫑긋 했었지요.

워즈워드는 여덟살에 어머니를 열세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조부모의 보살핌으로 케임브리지대학까지 마쳤는데, 더 어려서 부모를 잃었을 동생 도로시는 이모 집에 맡겨져 허드레 일을 하느라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도로시 나이 스물이 넘어서야, 형편이 좋아진 오빠 워즈워드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는 키가 180cm에 프랑스 이탈리아의 문물을 경험한 꽃미남! 일층에 살며 오빠의 온갖 시중을 들던 도로시는 시상이 떠오른 워즈워드가 2층에서 발을 통통 구르면 올라가 워즈워드가 부르는 시를 받아 적어 정리 했었기에 워즈워드의 시에서는 여성의 감수성이 많이 드러난다고 하지요. 워즈워드는 도로시의 친구와 결혼했는데 결혼식 날 동생은 사랑하는 오빠를 누군가에게

보내야한다는 슬픔에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도 못해, 워즈워드가 동생 방에 들어와 자신의 반지를 빼어 동생의 손에 끼워주고 그 반지에 입을 맞추자 그녀도 그 반지에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오빠가족과도 함께 살았던 동생 도로시는 이층 오빠부부의 침대와 일층 자신의 침대를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맞추며 살았기에 올케는 남편과 시누이의 그런 복잡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정신병에 걸렸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워즈워드가 죽었을 때 계관시인인 그가 런던의 웨스터민스터사원에 묻혀야함에도 도로시는 오빠가 사랑했던 고향땅에 묻혀야 한다고 주장하여 그의 묘는 도브코티지 근처 그라스미어교회에 있다지요.



신나게 얘기를 마친 여행가이드가 오빠와 부인 그리고 동생의 삼각관계에서 누가 나쁘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저런 의견 중 대다수는 '두 여자 사이에서 우물쭈물한 그놈이 나쁘다'고 했지만, '그 관계에서 나쁜 사람은 없다. 나쁜 사랑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도로시, 그녀의 삶을 그려보면 그 사랑이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집착으로 친구이자 올케의 입장을 아니 자신의 현실을 바로 볼 수 없었던 그녀가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치우쳐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때론 사랑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구속하고 억누르는 일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여행은 우리를 근시안적인 일상으로부터 수십 수백 걸음 떼어놓는 물리적 장치인지 모릅니다. 낯선 사람들 틈에 혼자 끼어 한국에 두고 온 자신을 바라보면 조금씩 시야가 넓어져 나무너머 숲을 보는 안목이 생기기때, 여행에서 돌아오면 우리는 떠나기 전보다 조금은 더 깊고 너그러운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을 괴롭히는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한동안 멀리서 바라보다 힘든 마음을 살짝 털어내고 왔으니까요. 도로시도 집을 떠나 이런 저런 여행을 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어땠는지 생각해봅니다. 아~ 또 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독서로 세상 이곳저곳 두루 두루 여행하시며 부디 마음 따스하고 훈훈한 겨울 보내시길 두 손 모읍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글 | 김성의 이사장



##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나, 무엇이 문제인가요?

어릴 때에는 독특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만의 스타일이 확고했던 아이가 언제부턴가 잠시 밖에 나갈 때에도 또래 아이들 스타일의 화장부터 하려든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먼발치서 보자면 머리부터 옷차림까지 거의 똑같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차림에 변화를 주라고 권하면 '남들 사이에서 튀면 안 된다.'라는 통명스러운 답변이 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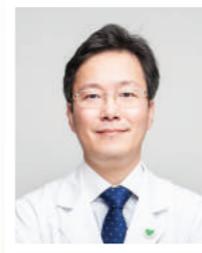
원하건 원치 않건 그동안의 비교와 평가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일상적인 일도 쉽게 결정하지 못해 타인의 취향을 먼저 알아보기도 하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타인의 리뷰부터 집중적으로 검색하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본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나 오프라인에서의 어울림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각종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가 보편화되면서 타인의 삶을 힘들지 않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타인의 관심과 칭찬이나 비난 그리고 그에 대한 집착이 때로는 누군가를 통째로 뒤흔들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인정이나 사랑받기를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사회심리학이나 진화심리학에서도 인정을 추구하는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욕구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잘 알려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중에서도 이러한 인정욕구를 거론하고 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정욕구에 어느 정도는 사로잡혀 사는 듯 하고, 어떤 이들의 행복은 타인의 인정으로 완성된다. 예를 들어서 훌륭한 성과를 거둬도 주변의 칭찬이나 감탄사가 없으면 뭔가 허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갑질'현상도 내재된 인정욕구의 왜곡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인정욕구를 이야기 할 때 자존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존감이 낮거나 불안정하면 실패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고조되어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지고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게 된다. 특히 스트레스가 계속 몰려오거나 뭔가를 완벽히 하고 싶을 때, 자신의 감정을 쉽게 털어놓지 못할 때면 더욱 자존감이 낮아져 타인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 일이 잦아지게 된다. 심할 경우에는 불안이나 우울감에 사로잡힐 수 있고, 타인이 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고 사소한 말과 행동도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관계사고, 더 나아가 망상적 사고 등의 병적인 상태로 이행될 수도 있다.

우리를 괴롭히는 열등감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해석이라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는 타인에게 미움 받을 용기를 갖는 것, 미움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말한다. 실제로 나를, 내 얼굴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타인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일 것이다.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차분히 자신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자기관리를 잘 하고 반복적인 자신에 대한 격려와 긍정적인 자기 암시 등을 통해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그리고 칭찬이나 피할 수 없는 비난이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위축, 자존감의 저하, 그리고 그로 인한 심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 건 학 진료부장

# 청소년 자살



“대가리는 의미 없어 장식품이야. 이제 네 차례는 끝났으니 사요나라야. 대가리박고 자살하자”

[초중고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자살 노래]



“칠칠 칠층에서 떨어져 / 팔팔 팔다리가 부러져 / 구구 구급차에 실려가 / 십십 십초 안에 끝까닥”

[유치원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자살 노래]



강남인 진료과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라북도 교육청 정신건강전문 컨설팅지원단  
학교 정신건강 전문가 연수 교육 수료

언젠가부터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장난스럽게 불려지는 있는 일명 ‘자살송’의 가사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은 무려 62,000여 명이며 10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이다. 더불어, 청소년 네 명 중 한 명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만큼의 ‘심한 우울감과 자살 사고’를 느낀다고 한다. ‘자살’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자살률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 것은 유례없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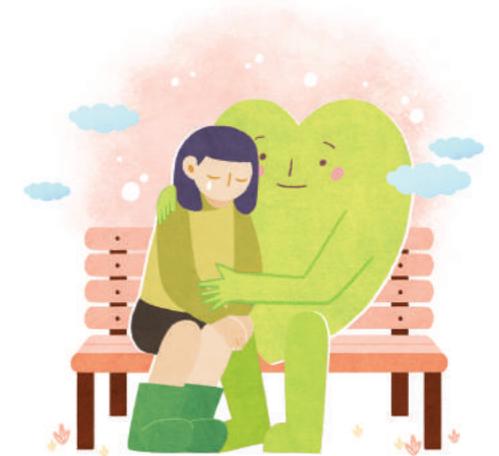
청소년기의 자해 및 자살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들이 작용한다. 사회가 변하면서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과거의 청소년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기대와 요구를 받고 있다. 서열화 된 사회에서 과거에 비해, 학업을 비롯한 보다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더불어 청소년기는 정신 생물학적으로 자기 조절력을 갖게 하는 전전두엽의 성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신체적 성숙에 비해 뇌의 자기 조절력이나 억제력은 매우 부족한 ‘충동적인 상태’에 있다. 따라서 감정을 조절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억누르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데,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자기주장을 잘하지 못하고 또래와의 갈등 상태에 놓이면 더욱 쉽게 자기 통제력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학교 폭력이나 왕따, 건강한 롤 모델(role model)의 부재 등도 모두 청소년기 자살과 관련이 있다.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자살이 자신의 삶에 대한 포기의 한 표현이라면, 청소년들의 자해나 자살 시도는 가정이나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것이다.

다행히 자살을 시도하려는 청소년들의 90%는 자살 전에 자신의 자살 의도를 직간접적으로 알린다. 꼭 의도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작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SOS 신호를 알아차리고 손을 내밀어 준다면, 자살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유명 래퍼 ‘도끼’는 지난 9월 11일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청소년 자살 예방 캠페인 송인 ‘들어줄게’(Ready to listen)를

발매했다. 가장 힘들 때 옆에서 ‘많이 힘들었구나.’ 하며 지지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훈계가 아닌 관심과 사랑이다. 그리고 적절한 환경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동반된다면 어른들보다 유연한 회복 탄력성을 기대할 수 있다. 간혹 청소년들은 우울한 기분과 마음의 상처가 비행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실제 품행 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40% 정도는 우울증을 동반한다. 그 외에도 불안장애, 인터넷 중독,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위험요인이 있다면 함께 치료 받아야 한다. 치료 받지 않은 상처는 덧나고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부디 우리의 아이들이 제때에 적절한 도움을 받아 그들의 환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마음사랑병원에서는 상처 받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햇살 가득한 치료 공간 ‘햇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을 이용한 단기 집중 치료도 가능합니다.

마음사랑병원 고객센터 063-240-2114(24시간 상담)



• 사이코드라마 프로그램 •

# 내 인생 속 진짜 주인공이 되는 시간...

글 | 사랑클리닉 이희준 정신건강간호사

마음사랑병원에서는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인지행동치료, 문학요법, 원예심리요법, 동물매개치료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 안의 나를 만나며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고 치유하는 본원의 대표 프로그램 사이코드라마(마음의 극장)를 소개합니다.



### Q 사이코드라마가 무엇인가요?

A 사이코드라마는 Psycho(정신)+Drama(연극)의 합성어로 쉽게 심리극이라고도 합니다. 1921년 자콕 레비 모레노라는 의사에 의해 시작되어, 수십 년에 걸쳐 다듬어 지고 세분화 된 집단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의 지분(持分)은 얼마나 되시나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당연히 내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들은 좋지 못한 기억으로, 심하게는 트라우마가 되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심리극은 치유의 극장 안에서 내 인생 속 나 자신이 전지전능한 신이 되어 보기도 하고 온전한 주인공으로서 한바탕 신나게 놀아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 Q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A 크게 3단계로 워업, 본극, 나누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워업>** 서로 친숙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참여자들의 자발성을 키웁니다. 신체적 정신적인 이완을 통해 내 안의 나를 꺼내어 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본극>** 참여자 중 1명을 주인공으로 선정하여, 주인공만의 이야기로 마치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고 연기합니다.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주인공이 가진 억압된 감정들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단계<나누기>** 주인공의 문제에 대한 분석보다는 함께 참여했던 집단 구성원들의 경험과 감정, 느낌을 주인공과 함께 공유합니다.

### Q 어떤 부분에서 치료가 되나요?

A 과거 및 현재의 갈등상황을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재구성하고 표출함으로써 억압된 감정의 방출을 돕고, 행동화를 통해 몸과 마음에 쌓인 정서적 쓰레기를 해소시킵니다. 또한 집단 간의 상호작용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대인관계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몸과 마음으로 깨우칩니다. 이러한 과정은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함은 물론 자기이해를 통해 갈등해소를 돕습니다.

## 사이코드라마 프로그램 경험담

### 차OO 환자

두려움도 있었지만 주인공으로 참여하면서 나를 우울증 환자로 만든 가족들에게 드라마 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털어 놓았습니다. 남동생과 차별하는 엄마에게 소리도 쳐보고 화도 내보고... 이렇게 하고나니 가족에 대한 분노가 많이 사라졌어요. 퇴원하고 나서도 마음이 답답할 때면 병원에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정OO 환자

저는 주인공으로 나설 용기는 없지만 관객으로 한 번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환청이 있는데 저에게 환청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른 환자가 주인공으로 나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환청에 화도 내고 욕도 하는걸 보면서 제 기분이 후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 송OO 간호실습생

실습 중 프로그램을 참관하게 되었는데, 저도 주인공처럼 아버지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관객으로 극을 지켜보면서 제 생각이 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다른 관객들이 가슴으로 함께 공감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최근 정신과 병원에서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심리극을 진행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2010년부터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의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진행자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체계적으로 교육된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리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루어 주 2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사랑병원은 10여 년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본극에 참여하는 내담자에게 치유적 경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18 일본 해외연수 •

# 마음사랑병원에서 힐링을 외치다

글 | 낮병원 구 유 준 정신건강간호사



마음사랑병원과 인연을 맺은 지 7년이 되어가는 지금, 저는 중국과 일본으로 두 번의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해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총 13명의 인원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해외우수 의료서비스 벤치마킹과 더불어 자연 속에서 쉬며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견학한 '마츠바라 정신병원'은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위치해있는, 올해 91주년을 맞이한 역사가 깊은 병원입니다. 365일 24시간 입원이 가능하며 많은 치료진이 급성기 환자를 담당하고 있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병원 곳곳에 환자의 인권을 위한 세심한 배려들이 돋보였으며,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환자나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정신치료환경과 관련 법률이 우리와는 달랐지만, 환자들을 위하는 마음은 마음사랑병원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외선진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정신건강의학 분야에서의 정보교류는 한 명의 치료진으로서 정신건강간호사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자극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연수는 기관견학 뿐 아니라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끼며, 최고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중 일본 전통 료칸에서 보냈던 시간은 이번 일정 중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뜻한 온천욕과 푸르른 녹음이 멋졌던 산책, 아기가기했던 음식들을 맛보며 최고의 대접을 받은 그 시간은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사랑병원에서 직원들의 배움과 힐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료칸



# 마츠바라 병원



# 북알프스



# 히가시치야거리

또한 료칸을 비롯해 일본을 대표하는 여러 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도진보 관광을 시작으로 에헤이지 사찰, 에치젠 대나무인형 마을, 히가시 치야거리, 일본 3대 정원의 하나인 겐로쿠엔 정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 유산지 시라가와 합장촌 등 일본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며 일본의 정서와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연과 문화가 공존했던 일본의 명소들을 보며, 꼭 다시 와보고 싶은 곳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즐겼습니다. 해외연수를 통해 느낀 것을 우리의 일터에서 적용하는 과제가 남은 지금, 환자들의 재활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좀 더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환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저는 마음사랑병원에서 더 배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해보아야 최고의 서비스를 베풀 줄 안다는 경영방침에 따라, 해외연수를 통해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해준 병원 경영진께 감사드리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한 만큼 다양한 시선과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환자들에게 다가가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

대상자와  
함께하는

Healing Day

서로의 발전을  
만들어가다!

글 | 사회사업팀 배은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1월 13일 본원은 <제9회 마음사랑축제 'healing day'>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관련 시설 입소·이용 회원, 가족, 종사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연대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매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사회복지시설 8기관, 정신요양시설 3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4기관, 바우처 상담센터 1기관, 공동생활가정 1기관, 의료기관 내 재활시설 1기관 총 18기관에서 309명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의 기타소리와 함께 축제가 시작되었고, 곧이어 취업생활을 유지하며 재활에 힘쓰고 있는 대상자를 위한 직업재활상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증상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상 그리고 재활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위한 재활희망상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꽃다발을 들고 있는 수상자들의 표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행복한 미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이후 이어진 장기자랑에서는 마음 모아 만들어진 하모니와 악기연주 그리고 역동적인 춤 등을 통해 대상자들은 그 동안 쌓아 온 끼와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각 팀의 공연이 끝난 이후에도 질서정연하게 자리에 앉아 다른 팀의 무대를 감상하며, 축하하고 환호하는 대상자들의 모습에서 '함께'의 의미를 더욱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헤어질 때 "감사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하게 웃고 즐길 수 있었어요", "이렇게 웃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준비해주신 음식,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등의 따뜻한 말을 건네는 대상자들의 모습을 보며, 서로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사랑병원은 지역사회내의 유관기관들과 함께 정신건강증진이 필요한 대상자에 더욱 공감하며 정서교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 몰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

By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글 | 마음클리닉 함수경 수간호사

이 작품은 프랑스의 한 정원에서 춤을 추거나 담소를 나누는 19세기 파리지앵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파리의 화려한 무도회장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묘사한 르누아르의 명작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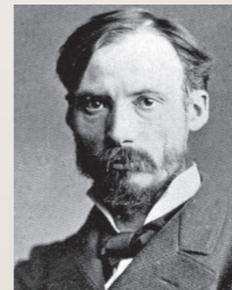
### 작품이야기

어느 일요일 오후의 파리, 몽마르트 언덕 근처 작은 정원에서 열린 무도회에 따스한 햇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금발의 홍조를 띤 여인들은 환하게 웃으며 남성들과 대화를 하거나, 춤을 추며 흥겨운 분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옷을 갖춰입은 남녀의 모습에서 당시 부유한 파리지앵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아하고 부드러운 붓 터치와 반짝이는 빛으로 감싸져 있는 그림 속 인물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행복해 보입니다.

‘몰랭 드 라 갈레트’(Moulin de la Galette)는 파리의 몽마르트에서 사크레코르 성당을 오르는 언덕길 작은 광장에 위치한, 대중적인 무도장을 겸한 놀이장소였습니다. 당시 대중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아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르누아르는 이 장면을 그리기 위해 작업실까지 근처로 이사했을 만큼 작품의 배경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고, 이곳을 배경으로 여러 점의 습작을 그렸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르누아르의 친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화면 왼편에는 스페인 화가 돈 페드로가 여인과 함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빈 공간에서 관람객을 장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진 전경의 인물을 통해 관람객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 균형감을 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큰 화면을 가득 채우는 여러 명의 움직이는 인물들의 다채로운 동작에도 불구하고, 전경 양편에 있는 인물에서부터 후경의 춤추는 사람들 까지 균형감 있게 그려진 것은 르누아르의 오랜 노력과 치열한 열정 끝에 완성된 걸작이라고 하겠습니다.

### 작가이야기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 인상주의 화가(1841~1919)

가난한 양복점을 운영했던 집안 형편 탓에, 르누아르는 13살부터 도자기공장에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색채를 익혔던 것이 차후 그의 작품세계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무렵 점심시간이 되면 루브르 박물관에 들렀는데, J.A.와토와 B.부세의 작품을 감상하며 화가가 될 것을 꿈꾸었다고 합니다. 1900년에는 프랑스 미술의 우아한 전통을 근대에 계승한 뛰어난 색채가로 인정받으며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습니다.

류마티즘성 관절염을 앓아 고생했던 말년에도 손가락에 연필을 매고 그림을 그리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최후 10년간은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지만, 조수를 써서 조각을 만드는 등 작품활동을 이어갔습니다. 

# 마음사랑병원 신메뉴 대첩

글 | 구매영양팀 우지연 영양사

바쁜 일상을 지내고 있는 우리. 우리는 아직도 생일이면 미역국을 끓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시락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을 때 음식만한 것이 있을까요? 사소한 음식 하나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것은 누군가에게 기쁨일 수도, 정성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사랑병원은 환자와 직원에게 일상 속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 맛있고 참신한 메뉴를 선보임으로써 이들의 미각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중순, 호텔에서 사용하는 컨벡션 오븐의 도입은 다양한 메뉴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 구매영양팀의 정성 듬뿍! 열정 듬뿍!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신메뉴를 소개합니다.



## 컨벡션 오븐과 노란 빛깔 단호박의 운명적 만남

단단한 껍질 속 노란빛 단호박은 달콤한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 성인병을 예방해주고,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찜기에 찌거나 솥에 삶게 되면 너무 물러져 배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로 돼지갈비찜이나 찜닭에 섞어 제공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식단에 컨벡션 오븐이 새롭게 도입된 후, '단호박찜'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호박찜은 부드러운 소화가 어렵거나 음식섭취가 힘든 고연령층도 쉽게 드실 수 있어, 원클리닉에 입원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올리브유와 꿀을 섞어 바르면 단호박 특유의 단맛은 더욱 부각되고, 비타민 A의 흡수를 도와 영양과 입맛을 동시에 만족시켰던 신메뉴입니다.



단호박찜

## 아몬드와 초코칩으로 만드는 맛갈스러운 쉬폰

잼기를 이용하여 만들었던 영양빵이 클래식이라면, 오븐에 구워 만든 '아몬드 쉬폰'과 '초코칩 쉬폰'은 모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 아몬드 냄새가 가득한, 달콤한 초콜릿 향기가 넘치는 쉬폰을 기억하시나요? 비타민 E를 섭취할 수 있는 최상의 식재료 아몬드! 하지만 딱딱한 식감으로 치아가 불편하신 환자분들은 드시기 어려울 수 있어, 아몬드를 슬라이스하여 쉬폰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한 쉬폰 안쪽에 건포도를 섞어 단맛을 더하면 아몬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의 입맛까지 저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상의 달콤함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초콜릿을 섞은 초코칩 쉬폰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초콜릿이 진하게 녹아있는 쉬폰에 '이날의 힐링'이었다고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까만 쉬폰 위에 술술 뿌려져 있는 슈가파우더가 마치 겨울철 밖에서만 보던 새하얀 눈과 같아 행복한 하루였다고...



아몬드 쉬폰



초코칩 쉬폰

## 식단에 대한 피드백



애플파이, 초코빵, 크로크무슈, 마늘바게트, 비트영양빵 등! 평소에 사먹지 않으면 먹기 힘든 메뉴들, 그것도 직접 구운 빵을 병원에서 먹어볼 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무슨 반찬이 나올까?' 하고 매일 식단표를 확인 하는 것이 입원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 사랑클리닉 김OO환자

보통 병원 입원식으로 찾아볼 수 없는 색다른 메뉴들을 마음사랑병원에서는 많이 발견하게 되네요 알리오 올리오 고구마 블루베리 샐러드, 북경 동태찜 등...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기 위해 영양사 선생님께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박수쳐주고 싶어요! 이러한 메뉴가 즐거운 입원생활로 빠른 치유로 이어질 것 같아요.

- 꿈빛클리닉 이S△환자

마늘바게트의 적절한 파슬리와 노르스름한 비주얼, 고소한 마늘 향기 그리고 비삭하지만 촉촉함이 살아있는 적당한 굵기! 유명 재과점 이상의 맛으로 저의 오감을 자극하는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점심식사에 나온 단호박찜은 가을밤 하늘에 떠 있는 노란 보름달처럼 반짝이며, 꿀처럼 흐르는 달콤하고 촉촉한 맛은 점심시간에 누릴 수 있었던 소박한 호시였습니다.

- 진로지원팀 박상철 방사선사

환자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경청해 다음 식단에 반영해주시고, 예상하지 못한 조합의 퓨전음식을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게 만들어주셔서 항상 점심시간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맛있는 점심 부탁드립니다 ^^

- 간호부 백경림 수간호사



## 기타 신메뉴



※ 마음사랑병원 영양팀에서는 환자분들의 먹는 즐거움을 위하여 월 4개씩 해마다 약 50개의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 온전한 마음

글 | 중독치료센터 이OO 환자



## 술은 성격의 결점을 포장할 수 있었고, 내면의 아쉬움을 대신할 수 있었지...

그래서 나는 술과 영원할 거라 믿었고 술에 의지했어. 내 기억 속에 아버지도 늘 술을 마셨고, 취해 있었지. '술은 좋은 거야'라며 흥청망청 술로 모든 걸 다 풀어버리고, 넘어지면 일어나 술을 찾았고, 고꾸라지면 엎드린 채로 술을 먹었지. 그럼에도 술 때문에 저지른 그 많은 실수와 사고들에 대해 반성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폭음 뒤 어김없이 따라오는 여러 번의 음주운전과 폭력으로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가지게 되었고, 경찰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들을 때려서 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으니, 지금 나는 범법자다!!! 술을 마시기 위한 핑계와 변명으로 또 다시 나를 무장했고, 중독에 빠져 망가지는 자신을 마주하기 싫어 술을 찾아 회피하고 부정하는 나날이 이어졌다.

## 이젠 알게 되었지...

마음사랑병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알코올중독이라는 질병이 몸과 마음은 물론 정신까지도 피해를 만들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내 나이 49세, 이곳 마음사랑병원에 입원하여 중독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30대 초반부터 술 문제로 이 병원, 저 병원을 들락거려왔다. 그사이 가정에 불화가 생겨, 부인은 떠나가고 두 아들은 남았지만 남보다 못한 관계로 전락한 지 오래... 나 혼자 외톨이가 되었다. 큰 아들은 학업을 포기한 채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작은 아들은 복학도 하지 못한 채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객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두 아들에게 아버지다운 역할을 하지 못했기에, 어쩌면 이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당연한지도 모른다. 몹쓸 세월이고, 잊고 싶은 15년이다.

마음사랑병원 중독치료센터에서 진행되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알코올중독의 치명적인 위험을 하루하루 배우고 있다. 조절음주가 헛된 망상이라는 사실까지도... 단주멤버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내 이야기와 비슷해서 순간순간 소름끼칠 때도 있었고, 배울 부분이 많아 잔잔한 감동이 내 가슴을 먹먹하게 할 때도 있다. 생김새만 다를 뿐 중독이라는 병에 걸려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은 나와 너무나 닮아 있음에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또 아버지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다. 알코올중독의 유전적 요소와 성격적 결점을 방패막이 삼아 병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더불어.

모두가 지쳐서 포기하고 떠났어도 한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과 정성을 다하는 병원 치료진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나를 떠난 부인도 용서한다. 내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니 어디서든 행복하기를 빌어주련다. 그리고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기다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으로 무장한 정신과 T.A나 A.A.모임과 같은 자조모임에 우선순위로 참여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지금의 병원생활을 잘 이어갈 것이다. 과거보다는 현재를, 어제보다는 오늘을 생각하며, 항상 깨어있기를 습관처럼 길들이고 그것이 단주생활의 지름길임을 기억할 것이다. 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준 마음사랑병원 중독치료센터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마음사랑병원에는 문학, 요리, 음악 등 다양한 방면에 재주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낮에는 병원에서 밤에는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낮병원 우리함께> 회원들의 시를 소개합니다.**

### 너는 꽃이다

낮병원 김○○ 회원

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세찬 비도 맞고  
거친 바람도 맞아  
무너져가기도 하지만

끝내 꽃을 피우게 하는  
밝고 따뜻한 햇살  
굳고 단단한 흙이 있듯

결국 꽃을 피우는  
희망의 메시지는  
당신의 관심과 환한 미소

나를 꽃처럼 대해준다면  
그 꽃은 더 빛나게 될거야



### 만남

낮병원 김 △ △ 회원

어언 20년 만난 친구여  
수줍은 나무의 반년 세월아  
보고 싶은 너의 미소 속에  
웃음을 간직한 꽃망울  
해맑게 단장한 머슴아이야  
변함이 없는 그늘이예요  
만남의 순간마다  
웃음 꽃 피우자

※ 낮병원에서 알게된 최○○, 이△△회원을 생각하며 쓴시. 치료적 만남을 계기로 현재의 낮병원까지 15년을 함께 지낸 세월이 고맙고 소중하다. 나의 소중한 두 친구에게 이 시를 바친다.



### 그리움

낮병원 이 □ □ 회원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  
어릴 적 이사 온 아이가  
오빠라고 불렀을 때...

추억에 잠긴다  
첫사랑  
봄비같이 내리는 첫사랑인데  
한번 말도 못 붙이고

그녀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 어렸을 때 한 소녀가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오빠라고 불렀을 때 기분이 좋았다. 낮병원에서 진행하는 '문학 프로그램'에서 정희성 시인의 <그리운 나무>라는 시를 읽고 그리움을 주제로 시를 쓰는데 어렸을 적 그 소녀가 생각났다.

마음사랑 고객상담센터 이야기

# 가족의 걱정과 눈물을 안도와 희망으로!



“제가 미칠 거 같아요. 제 생활을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지금이 고통을 감수할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은 환자와 가족들은 고객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급박하고 간절한 목소리는 가족들의 복잡한 심경을 말해주며, 치료와 회복에 대한 희망과 꿈이 깨진 상태를 느끼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닥친 정신질환을 받아들이기까지 힘들었지만, 그 후에는 우울감, 위기감, 상실감을 안고 더욱 가슴 아파합니다. 고객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가족들은 정신질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 정신질환자일수도 있다는 것에 상담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치료 시기가 지난 경우가 많으며, 조심스럽게 건네는 질문을 통해 정신병원에 대한 편견과 입원기간 동안 환자가 겪게 될 적응의 어려움을 걱정하며 몹시 불안해하고 있음이 전해집니다.



글 | 고객상담센터 임솔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환자의 증상으로 고민하고 어려웠을 가족들의 마음이 느껴져 안타까움이 큼니다. 상담 전까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용기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가족과의 상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업무 처리를 위한 마음가짐으로는 환자와 가족들과의 진정한 소통이 어렵고, 상담 중에 건네는 말 한마디로 아프고 지친 가족들에게 상처 혹은 희망을 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목소리와 표정을 통해 힘든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친 가족들이 환자의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치료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가족들이 더 이상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황에 맞는 심리적 지지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극도로 어려웠던 상황을 놀랄만큼 이겨내고, 환자의 증상이 좋아짐에 따라 무너졌던 꿈과 희망을 다시 찾는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 건강하게 회복되어 퇴원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밝게 웃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줄 때, 저희는 크나큰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고객상담센터에는 오늘도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과의 상담이 이어집니다. 마음사랑 고객상담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족들이 회복과 희망이란 끈을 놓지 않고,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먼저 한걸음, 한걸음 다가서겠습니다. ♥



마음사랑병원 고객상담센터 063-240-2114 (24시간 상담)

마음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시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곽 준**

-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가천대학교 길병원 인턴 수료
-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료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회원
- 국립나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노인정신 과장
- 대한불안학회 불안장애 심층치료과정 수료

전문분야 기본장애 및 불안장애, 조현병, 중독질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이 진 영**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동국대학교병원 인턴 수료
- 국립법무병원 전공의 수료
- 前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과장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회원

전문분야 기본장애, 조현병, 중독질환

마음사랑병원 **제12회 마음사랑 장학금 수여식 진행**

〈제12회 마음사랑 장학금 수여식〉이 8월 29일 본원 문화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마음사랑 장학금’은 전북지역 정신장애인 자녀들이 학업을 유지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후원사업으로, 이번 수여식에서는 학업을 지속하는 정신장애인의 자녀 가운데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14명을 선발하여 총 52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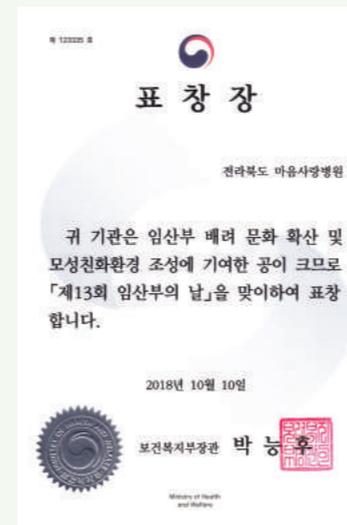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2회째 진행되는 마음사랑 장학금 사업은 현재까지 181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후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마음사랑병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협약식**



9월 18일 인산의료재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의 업무협약식이 본원 인산홀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은 특히 낮은 취업률을 보이는 전북지역 정신장애인의 취업현황을 개선하고자 진행되었다. 해당 협약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고용활성화를 위해 협업하는데 합의하였다. 더 나아가 이들의 취업연계를 위한 인적자원의 정보공유를 포함해,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는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악화된 정신장애인 취업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어, 미취업 상태의 많은 이들이 경제적 및 사회적 자립을 이루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마음사랑병원 **‘임산부의 날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10월 10일 마음사랑병원은 ‘제13회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번 표창은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및 모성친화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타기관에 모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원은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와 직원의 일·가정양립을 위해 매년 새로운 제도와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가족친화경영방침을 바탕으로, 매년 가족초청행사 진행, 직원의 육아휴직 장려, 가족휴양시설 지원, 직원가족 건강검진 제공, 근로자건강증진 활동 등 ‘가족 및 출산 친화적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의 행복으로, 가족의 행복으로’의 슬로건을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된 생활을 통해 ‘직원이 행복한 병원’으로 거듭나, 환자와 고객에게 더욱 큰 사랑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마음사랑병원 중독치료센터 열정의 체육대회



10월 19일 본원 중독치료센터는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체련공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환자와 퇴원 후 회복중인 회원 그리고 치료진이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번 운동회는 배구, 계주, 발야구, 줄다리기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적극적으로 게임에 참여하는 환자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한가울에 펼쳐진 이날의 운동회에서 환자들은 서로 간의 우정을 다지고, 치료진과 친목을 도모해 건강한 라포를 형성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중독치료센터는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스포츠 활동으로 환자들의 건강과 성취감을 증진시켜 이들이 중독으로부터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

마음사랑병원 2018 장기근속자 수상



병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사명감으로 오랫동안 수고해온 장기근속자를 표창하는 시상식이 본원 문화센터에서 11월 7일 진행되었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진심어린 축하 박수와 격려 속에서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수상자에

대한 상패 및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훈훈한 시간이 되었다. 이 밖에도 마음사랑병원은 매년 인산인, 모범직원, 공로직원을 선발하여 직원의 사기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년 근속 수상자>

송봉용 진료원장, 최한재/천영자 조리원, 하영숙 간호조무사, 용태영 인사교육팀장, 홍윤미 책임간호사

마음사랑병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약식 진행

11월 19일 마음사랑병원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의 업무협약식이 본원 인산홀에서 열렸다. 이날 협약식은 '도박중독자의 정신건강의료서비스 및 지역사회기반 사례관리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였다. 두 기관은 도박중독에 대하여 응급 및 외래서비스 지원, 지역사회기반 사례관리 서비스 상호의뢰 및 협력, 그리고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교류 등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이용자 중 자타해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치료연계와 정신과 공존질환이 있는 이중 진단자, 도박중독 고위험군 업무연계 등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재 / 단 / 소 / 식

노인요양시설 사랑드림

임실치즈테마파크로의 가을나들이



사랑드림은 국화를 바라보며 계절을 느끼고 외부 활동을 통해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10월 24일 임실치즈테마파크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을나들이를 다녀왔다. 가을 색으로 펼쳐진 수 많은 국화를 바라보며 어르신들께서는 곱다는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다. 가을속에 진행된 나들이가 사랑드림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추억이 되었기를 소망해 본다.

정신재활시설 아름다운세상 '생명 밥차' 봉사활동 진행



9월 19일 우아2동 주민센터에서 '생명 밥차'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 약 250여 명에게 점심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아름다운세상에서 생활하는 당사자들이 직접 만든 음식으로 준비되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아름다운세상은 "지역사회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함께 사랑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더 힘쓰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힐링 Day' 마음을 이어주는 행복한 세상



11월 29일 정신장애인과 가족, 정읍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하여 '힐링 Day'를 진행하였다. 내담자와 가족에게는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생활의 활력이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유관기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상호교류 활성화 및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힐링 Day'는 유진섭 정읍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알리기 위한 센터 소개, 환기를 위한 판소리공연 관람 후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정신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를 통해 내담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을 공공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 날' 기념 캠페인 <마음영양나눔> 실시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0월 한달 동안 <마음영양나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마음영양나눔 캠페인'은 비타민 C, 음료수, 과자, 명언, 다짐카드, 센터홍보 명함으로 구성된 마음영양KIT를 배포함으로써 완주군민들에게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총 2,000명의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펼친 해당 캠페인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퇴근 시 프리허그와 함께 마음영양나눔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치매극복연극제' 개최



9월 11일 전라북도청 3층 공연장에서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치매극복연극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전라북도, 치매사업관계자, 도민 등 약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공감하는 치매극복연극제로 진행되었으며 치매공감 구연동화 '누가 내 케이크에 소금 뿌렸어'와 치매극복연극 '펜션에서 1박2일' 공연을 선보였다. 이 밖에도 부대행사로 치매예방 및 인지훈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유익한 치매정보 등 치매와 관련한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부스도 운영되었다. 센터는 매년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치매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마음사랑병원 월례교육



# 마음사랑병원 셔틀버스 운행안내

## 월.례.교.육 9월

### 우리소리로 힐링하라!

9월 교육은 <우리소리로 힐링하라!>의 주제로 박천지 지휘자와 3명의 단원이 이끌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우리가락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퓨전음악무대로 문화공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서 박천지 지휘자는 한국음악의 역사와 종류, 변화과정에 대해 소개하였고, 국악은 사용계층 및 상황에 따라 양반음악, 궁중음악, 의식음악(제례, 무속등), 민속악(성악, 기악) 등으로 나누어짐을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 음악의 대부분이 자연의 소리에서 만들어졌으며, 인간이 가진 교유의 정서와 감정을 담고 있음을 전달했다. 무대에서 선보인 경쾌한 가야금과 대금 연주는 인산재단직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판소리 공연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신명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통해 우리음악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자

10월은 용혜원 시인을 초빙하여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자!>의 주제로 인문학 교육을 진행하였다. 강의에서 용혜원 시인은 한번 뿐인 인생을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고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강연하였다. 특히 자신의 작품의 인용을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연한 가을 속 시 낭독과 함께 이루어진 해당 교육이 인산재단 직원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래본다.



## 월.례.교.육 10월

### 나를 위한 시간, 핵심가치를 찾아서

11월 교육은 <나를 위한 시간, 핵심가치를 찾아서!>의 주제로 김인식 교수가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팀빌딩을 통해 함께 일하는 동료의 강점을 발견해 공유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핵심가치를 발견하는 활동을 했다. 또한 핵심가치를 일터에서 어떻게 발전시켜 적용할 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교육을 통해 나와 병원의 핵심가치를 찾고 성장을 함께 고민하는 insan인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해 본다.



## 월.례.교.육 11월

○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 마음사랑병원을 찾는 모든 방문객은 셔틀버스(낮병원 포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병원 출발	08:30	08:40	09:30	10:20	10:45	11:45	12:20	13:30	14:00	14:30	15:30	16:10	16:45
소양 (면사무소)	08:34		09:34		10:49	11:49		13:34		14:34	15:34		16:49
고려병원 앞	08:43		09:43		10:58	11:58		13:43		14:43	15:43		16:58
안골 (파리바게트)	08:47		09:47		11:02	12:02		13:47		14:47	15:47		17:02
모래내 (가족마트)	08:55		09:55		11:10	12:10		13:55		14:55	15:55		17:10
안골 (향연유외과)	09:00		10:00		11:15	12:15		14:00		15:00	16:00		17:15
수한방 병원 앞 (고려병원 건너편)	09:04		10:04		11:19	12:19		14:04		15:04	16:04		17:19
소양 (농협)	09:11		10:11		11:26	12:26		14:11		15:11	16:11		17:26
병원	09:15		10:15		11:30	12:30		14:15		15:15	16:15		17:30
전주역 (웨딩의전당 건너편)		08:55		10:33			12:33		14:13			16:27	
건지산 이지움 아파트		08:57		10:35			12:35		14:15			16:30	
안덕읍 교회 정문		09:00		10:36			12:36		14:16			16:31	
전주덕진소방서 옆 (전주시 재활용센터)		09:03		10:37			12:37		14:17			16:32	
방송대 입구 (상성증권 전주지점 옆)		09:10		10:43			12:43		14:23			16:38	
고속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건너편 천변)		09:12		10:44			12:44		14:24			16:41	
시외버스터미널 (중앙병원 앞)		09:15		10:46			12:46		14:26			16:43	
한국은행 옆 (공간타일도기)		09:20		10:50			12:50		14:30			16:45	
모래내 (가족마트)		09:25		10:55			12:55		14:35			16:50	
안골 (향연유외과)		09:28		10:58			12:58		14:38			16:53	
북일초등학교 정문 (수협)		없음		11:00			13:00		14:40			없음	
대자인 병원 정문 (자인약국)		09:31		11:02			13:02		14:42			16:56	
전주역 건너편 (서강재활사)		없음		11:03			13:03		14:43			없음	
굴다리 (CU 편의점)		09:35		11:07			13:07		14:47			16:58	
병원 도착		09:45		11:20			13:20		15:00			17:10	

\*공휴일은 운행되지 않으며, 토요일은 오전까지 미니순환버스로 운행됩니다. (미니순환버스: 1, 3, 5, 6, 8, 10, 11, 13회 / 대형버스: 2, 4, 7, 9, 12회) \*운행 시간표 및 노선은 바뀔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63-

### ○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 (평화동방면)

노선	1회	2회	3회	4회
병원 출발	8:40	10:20	14:15	16:10
슈퍼동 나이트	8:51	10:31	14:26	16:21
아중리 지하보도 (파리바게트)	8:53	10:33	14:28	16:23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8:56	10:36	14:31	16:26
현대자동차 (KT 옆)	9:00	10:40	14:35	16:30
경원동 기업은행	9:04	10:44	14:39	16:34
남문치과	9:06	10:46	14:41	16:36
서서학동 화신당	9:08	10:48	14:43	16:38
평화동 지하보도 (전주농협)	9:10	10:50	14:45	16:40
티파니힐	9:12	10:52	14:47	16:42
광진공작아파트 버스 승강장	9:15	10:55	14:50	16:45
남양향실아파트 버스 승강장	9:18	10:58	14:53	16:48
화산체육관 버스 승강장	9:22	11:02	14:57	16:52
한일고 지하보도	9:25	11:05	15:00	16:55
금암동 우성 뷔테리	9:27	11:07	15:02	16:57
전북은행 본점 버스 승강장	9:31	11:11	15:06	17:01
전북대병원 입구 버스 승강장 (금암고물상)	9:34	11:14	15:09	17:04
대자인병원 응급실	9:37	11:17	15:12	17:07
전주역 (서강재활사)	9:39	11:19	15:14	17:09
굴다리 (CU 편의점)	9:42	11:22	15:17	17:12
병원 도착	9:50	11:30	15:25	17:20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 마음사랑병원 마음사랑후원회

'마음사랑후원회'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인간사랑'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 및 보호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마음사랑후원회**는 내부 직원 및 외부 후원자 약 500명이 정기적으로 후원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후원회 참여방법 (☎ 마음사랑병원 사회사업팀 : 063-240-2150)

- 정기 후원** CMS 후원신청서 작성 후 직접 지정해 주신 계좌에서 매월 5,000원 이상이 자동이체 되는 방법입니다.
- 비정기후원** 원하시는 금액을 직접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농협 : 356-1181-5666-13 정운진)
- 물품 후원** 의복, 식품, 도서 및 생활필수품 등 환우에게 도움이 되는 물품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 2018년 8월~2018년 10월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명단

<b>자원봉사자 총 250명</b>	
[생활지원_한사람이미용]	강남정, 강상자, 김리현, 김문선, 김미경, 김미희, 김선아, 김순영, 김은주, 김경남, 김중후, 김태정, 김해경, 김현숙, 김혜정, 김환석, 임권조, 박광희, 박선희, 박수현, 박은선, 박경순, 박현미, 서영미, 설동원, 소길재, 송경희, 신경옥, 신혜진, 양인숙, 양장식, 엄문희, 유소영, 육기순, 윤옥남, 윤정희, 이간경, 이성기, 이유숙, 이경숙, 이지선, 이춘희, 임갑경, 전은경, 정선아, 조선희, 주경옥, 주성미, 채윤희, 하승연, 한지현, 현예인, 황계희 (53명)
[생활지원_식당]	국인숙, 권경남, 김순옥, 김연순, 김용희, 라봉자, 박정순, 박황진, 배경옥, 여선희, 유금순, 육복순, 이길순, 이순단, 이순애, 이연남, 이영로, 이영순, 이종화, 전옥여, 경순례, 함경자, 홍옥희 (23명)
[생활지원_개인자원봉사자]	이경은, 박서현, 박서혜, 송인준 (4명)
[정서지원_기독교]	문학규 목사님, 전영철 목사님, 조용희 목사님, 신민경 목사님, 김광서, 국채희, 길태식, 김선옥, 김순애, 김애자, 김옥희, 김경연, 류시영, 박순임, 박경순, 박춘자, 배순진, 서문양님, 송진화, 신은순, 신필호, 안평남, 양선자, 양희남, 오봉숙, 오봉애, 오승자, 유조자, 윤태숙, 이수경, 이순덕, 이순조, 이옥기, 이경자, 임병환, 정인기, 조귀자, 채은자, 최영옥, 최영희, 최은자, 한경남 (42명)
[정서지원_천주교]	천주교 전주교구청 장진석(도미니코) 신부님, 김선미(수선나) 수녀님 사용자 (3명)
[정서지원_다도]	김금남, 김정림, 송순희, 안상길, 이림, 이미경, 최화운 (7명)
[정서지원_개인봉사자]	김혜미자, 박정순, 이연수, 전윤근, 하병선 (5명)
[정서지원_공연봉사단]	'네잎클로버공연단', '상록아울림아카데미', '소리에 반하다', '아카데미색소폰', '우리가락', '호산나공연단' 등 (약 100명)
[자원봉사자(학교), 전주대]	강지현, 김주란, 김주현, 김현진, 김혜원, 모민중, 박서현, 박연주, 박후정, 송해린, 이예림, 이예인, 한상진 (13명)

**외부 후원 총 459명**  
 (유)천보그린, (주)내외정보기술, (주)남원의료약품, (주)보감병원지점, (주)인스나인, 가재숙, 강경옥, 강경희, 강나루, 강미진, 강수경, 강수진, 강영석, 강인숙, 강찬오, 강채은, 강화숙(정원유니콤), 강희봉, 강희원, 경대용, 고남수, 고병훈, 고순화, 광동호, 광명영, 구도형, 구영란, 권선미, 권용주, 김경호, 김경조(우아시스템), 김경희, 김광현, 김구형, 김기덕, 김기봉, 김기수, 김남일, 김내영, 김달진, 김대용, 김동철, 김동철, 김미경, 김민재, 김민준, 김민재, 김병직, 김보영, 김복순, 김석진, 김성수, 김성숙, 김성식(1981), 김성식(1975), 김성태, 김세영, 김소연, 김소형, 김수연, 김순희, 김승민, 김승재, 김시연, 김언경, 김영광, 김영민, 김영실, 김영우, 김연자, 김영희, 김옥근, 김옥순, 김옥자, 김용근, 김용문, 김용경, 김용진, 김용현, 김원주, 김윤경, 김윤정, 김은경, 김은정, 김은애, 김은지, 김재원, 김정민, 김정수, 김경연, 김정은, 김경순, 김정환, 김종국, 김준근, 김중은, 김지수, 김지연, 김지은, 김지현, 김지혜, 김진경, 김진경, 김진영, 김창현, 김판석, 김학근, 김현기, 김현민, 김현자(1954), 김현희, 나경미, 나기원, 노경찬, 노옥임, 노옥희, 노진성, 노현정, 도용약동, 동만용, 류세나, 류형선, 오은영, 문기영, 문리과, 문미경, 박정철, 박근영, 박금옥, 박기성, 박문규, 박미자, 박병식, 박병준, 박병철, 박보람, 박삼태, 박삼환, 박상규, 박세희, 박순례, 박영근, 박영희, 박요창, 박인경, 박자순, 박정호, 박지희, 박진미, 박현철, 박현경, 박현숙, 박혜민, 배숙향, 배옥희, 배자영, 백도현, 백석기, 백선중, 백수경, 백조아, 백진호, 백현찬, 변오석, 서경태, 서소현, 서숙연, 서순애, 서정원, 서주희, 선옥녀, 선진태, 성백준, 성병일, 성병주, 성병희, 성 실, 성윤경, 성진영, 손주만, 손환표, 송명영, 송민선, 송병식, 송봉용, 송선희, 송애란, 송명환, 송원선, 송은혜, 송인미, 송인성, 송인준, 송중훈, 송지연, 송 호, 신명옥, 신영이 (이진유희), 신용환, 신은옥, 신태성, 신필호, 신현호, 신혜진, 신희숙, 심경숙, 안관호, 안미영, 안성옥, 안승규, 안시현, 안정희, 안종석, 안태훈, 안훈기, 양국현, 양승주, 영성규, 영혜영, 오복순, 오상호, 오은영, 오재현, 오정화, 오재진, 왕순일, 용성영, 용태진, 우옥녀, 우왕교, 원경화, 원다혜, 유능한, 유대근, 유두근, 유은선, 유은선, 유재영, 유지민, 유창근, 유충열, 유혜광, 유현희, 유형규, 유호원, 육희정, 윤광수, 윤남순, 윤면재, 윤미라, 윤석용, 윤성숙, 윤의순, 윤창수, 윤해진, 윤효숙, 윤효경, 은상봉, 이가은, 이경은, 이기성, 이남숙, 이대현(1963), 이대현(1984), 이대영, 이동영, 이득남, 이대림, 이대림, 이대림(1963), 이대림(1968), 이대림(1968), 이대림(1989), 이대림(1991), 이범식, 이범영, 이병관, 이병도, 이상고, 이상두, 이상봉, 이상희, 이상성, 이상자(1970), 이상자(1972), 이상철, 이수진, 이승철, 이승환, 이연수, 이연숙, 이영우, 이영일, 이영자, 이옥순, 이옥실, 이유미, 이은미, 이은지, 이은희, 이의철(한주상사), 이인원, 이인재, 이장혁, 이재진, 이재은, 이재현, 이정덕, 이정숙, 이정우, 이정은, 이종배, 이종원, 이종철, 이준영, 이준희, 이지영, 이진희, 이창수, 이창원, 이치실, 이태형, 이현민, 이현숙, 이현주, 이형규, 이형규, 이효숙, 이홍경, 이희선, 이희진, 임경숙, 임경숙, 임대식, 임대식, 임두수, 임마령, 임숙영, 임영석, 임영수, 임영애, 임옥희(경아영), 임용환, 임인서, 임종철, 임지영, 임창진, 임현희, 장선호, 장수빈, 장 연, 장영진, 장용수, 장은옥, 장지숙, 장지훈, 장한보, 전북종합박스, 전세원, 전세원, 전은신, 전현수, 전현순, 전환홍, 정경미, 정미자, 정미라, 정병우, 정수경, 정순성, 정순태, 정승현, 정영석, 정은누리, 정윤숙, 정은빈, 정은희(하림안산대리점), 정의성, 정지현, 정진권(보성수산), 정진철, 정충용, 정혜문, 정혜정, 조경자, 조영희, 조미영, 조백현, 조선우, 조순희, 조우진, 조유희, 조재희, 조철운, 조 훈, 지동현, 진공숙, 진영준, 차동훈(서울우유아중보급소), 차연수, 채길영, 채호성, 최고은, 최동순, 최동현, 최 란, 최명길, 최미숙, 최미영, 최상수, 최수석, 최영순, 최영식, 최영철, 최용석, 최윤규, 최윤진, 최인석, 최현식, 최현준, 최환주, 최홍선, 김스메디칼, 하나구급센터, 하나주(하이푸드), 한대진, 한병길, 한성중(주)태종, 한솔에이팩스, 한승희, 한시중, 한신희, 한영자, 한재근, 한정순, 한정희, 한종환, 한현수, 허미란, 허요한, 현희성(부귀농협김치), 현영자, 홍문기, 홍상표, 홍선희(1973), 홍선희(1985), 홍민진, 홍지영, 홍진성, 홍조룡, 황 성, 황철현, 황하나

**내부 후원 총 157명**  
 강경식, 강남인, 강서연, 강성환, 강수연, 강승민, 강애슬, 강원희, 강정서, 강혜진, 고석오, 고소영, 고정선, 구유준, 김리원, 김민진, 김병배, 김복덕, 김서경, 김성수, 김성식, 김성의, 김소리, 김수빈, 김수용, 김연아, 김예은, 김윤중, 김윤호, 김은애, 김은진, 김정은, 김경희, 김준희, 김지태, 김현수, 김현희, 김형태, 김화정, 나설이, 나의현, 당명일, 모은희, 문태준, 박민실, 박병순, 박상철, 박소라, 박용현, 박윤철, 박정은, 박혜민, 배미자, 배은희, 배은희, 백경림, 백주혜, 백철호, 변동근, 서소영, 서지혜, 성경현, 소정선, 송선순, 송영재, 송봉용, 송석주, 신연수, 신정은, 심성주, 영정희, 오남수, 오동희, 오영실, 오유림, 오진순, 용태영, 유지영, 유미순, 유서연, 유승기, 유연성, 유혜림, 윤경선, 윤여민, 이간혁, 이광배, 이구현, 이금단(구매영양), 이금단(임상성리), 이나라, 이다빈, 이민설, 이민정, 이수진, 이승연, 이승희, 이아름, 이영광, 이윤진, 이은자, 이장영, 이주희, 이 준, 이지연, 이진수, 이진주, 이춘재, 이화정, 이혜원, 이현정, 이해숙, 이화자, 이희선, 이희준, 임덕임, 임동준, 임솔미, 장유미, 장혜숙, 전대원, 전은지, 정경남, 정보라, 정상근, 정연숙, 정은진, 정의성, 정현순, 정혜정, 조대성, 조아라, 조인정, 진연호, 천영자, 최광현, 최금길, 최선미, 최인숙, 최재희, 최하은, 최희재, 최희순, 하근혜, 하영숙, 하태원, 한영일, 한상수, 한영은, 한정순, 한수경, 허지영, 허진아, 홍선우, 홍윤미, 홍정숙, 홍정옥

\* '마음사랑 후원회' 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위탁되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 '마음사랑 후원회'는 6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1회 후원회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환우의 가족지원비, 생활품 지원비, 연 1회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행사, 정신장애인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정신보건 유관기관 지원 등 다양한 곳에 소중하게 씁니다.

# 전라북도 유일

# 마취하 전기자극치료(M-ECT)

## 이제는 마음사랑병원에서!

심한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국제적으로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치료로 전라북도에서는 마음사랑병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어떤 질환에 효과적인가요?

- ✓ 심한 우울증
- ✓ 양극성 장애(조증)
- ✓ 조현병
- ✓ 분열정동장애
- ✓ 긴장증

### 치료효과는 언제쯤 나타나나요?

전기자극치료의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지만, 많은 환자들이 2-3회의 치료를 받고부터 증상의 호전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치료진행 : 일주일에 2~3회, 경과에 따라 6~12회 시행, 20~30분 소요

## 아래의 경우에는 전기자극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 약물 등 기존의 치료로 큰 호전이 없는 경우
- 빠른 증상 호전을 필요로 할 때
-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약물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약물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 난폭한 행동을 보이거나 자살 위험성이 높은 경우
- 식사를 거부하거나 탈진 상태에 이른 경우
- 임신으로 약물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 문의 : 063-240-2100 (외래진료 후 치료 결정)